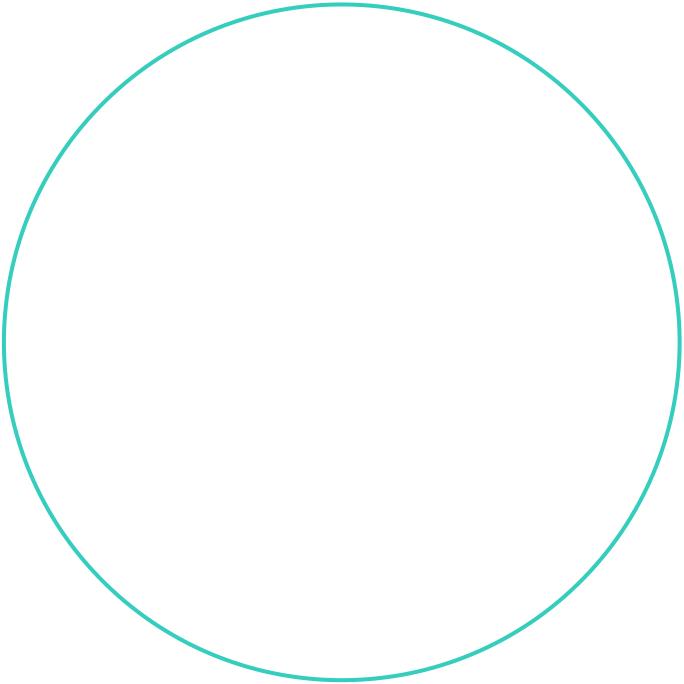


	그리고 얼마 되는 그 없는 그는 그들은 것이 없었다.			맞지 않는 그런 가장 없었다. 하는 것은 그런 얼마나 없다.	
			물리 경기 있는 것 같은 경기를 받는다.		
나이다 이 그 그렇게 하는 어린이 나와 하겠었다. 나에는 위하는 전 경기에 하는 어머니를 했다.				아는 아니라 하다 아이는 아니는 아니는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는 것이다.	





垂り振







CS異動の成長ストレッチ 乗り越えヒント集

CS異動は、 異動者の中期的な 成長を促進しますが、 異動後しばらくは 成長宿を もたらします。

CS異動者インタビュー

CS異動先の業務で、何らかの困難や 戸惑い、落ち込みを感じた割合

(18名中13名)

二配で初めてメディア担当になり、きつい得意 先に当たった。得意先は自分にメディア知識が ないと見ると、キツイ質問や理不尽な要求をし てきた。メディア担当は、得意先よりもメディ アについて知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痛感。

二配で、得意先の看板ブランドを担当。 得意先の経営層や大御所CDたちに囲まれ、仕事の量も質も要求水準が極めて高い。当初は彼らの共通言語がわからず、初めて仕事で悔し泣きをした。 初配の得意先はAEでアット ホームだったが、二配の得意 先はシビアで、手足として雑 務をやることも多く、他店と すぐ相見積にされる。

※CS異動者インタビューより